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부처님 (상)

김효학 (전북 익산시 신봉동)

고등학교 시절 자취를 할 때였다. 산과 가 사이에 있는 속소에는 새벽마다 어김없이 맑은 풍경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내가 긴 불교의 시작이었다.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하루는 시간을 내어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이 무엇이고 대웅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절에 찾아든 나를 불랑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처음 찾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마음은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했다.

그 이후로 공부 가 잘 되지 않거나 마음이 갑갑할 때는 그 사람을 찾았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가끔씩 들려 마음을 달래곤 하는 나만의 장소가 됐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시는 노보살님으로부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웅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풍경소리를 들으며, 사찰의 고즈넉함에 긴장과 불안을 놓으며 나는 입시를 치렀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나는 재수를 결심하고 상경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과의 차이 때문인지 적응이 쉽지 않았다. 입시공부에 박차를 가하고서 서울로 오게 됐지만, 막상 나에게 다친 환경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신까지 나약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고나 할까, 눈은 점점 높아지는데 내 여건은 그것과 점점 멀어져 갔다. 욕심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고, 불안은 그와 함께 나날이 깊어져 갔다.

그렇게 한해가 흘렀을까. 이듬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타지에서 육

신과 불안감에 안절부절할 때에도 그 존재감만으로 마음을 넉넉하게 했던 아버지. 뒷줄의 죽음을 상상 이상이었다. 우리 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빨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순도순 지내는 일을 얼마나 갈망했는가. 어려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본 기억이 없었기에 내 바람은 더 컸다. 아마 저도 나의 욕심이었다고 한탄 말인가. 세상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아버지 죽음에 마음 달래려 불교 찾아 예불·독경 가슴으로 접하며 환희심 느껴 청년회 활동하며 격주로 봉사활동 참가

그렇게 타지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보낸 날이 얼마였던가. 나는 고인을 가슴에 담으며 생과 사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결국은 생사의 얽힌 사슬을 푸는 종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나는 불교와 다시 마주하게 됐다.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 속에서 불교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휴일 관악산에 있는 연주암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연주암에는 특정한 불교모임이 없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곳의 어떤 분께서 여기는 산이 높아서 일반 불자들의 모임은 없으니 대신 시내에 봉은사라는 사찰이 있다며 그곳으로 가 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곳을 찾아 청년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대불전에 가입해야 할 나이였으나, 직업이 없는 일명 '백수'라는 신분에 열등감을 느껴서인지 청년회가 좋을 듯 싶었다. 토요일 오후 6시. 청년회 모임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은 조금씩 차가워졌다. 지하철 삼성역에서 내려 봉은사로 가는 몇 분 동안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충동적인 유혹의 소리가

넓은 법당 앞쪽에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묵묵소리에 일제히 절을 하고 또 일어서는 것을 반복했다. 그냥 예불문을 어떻게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예불을 모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나를 맞추느라 한참을 헤맸다. <천수경> 독송 때는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독경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쫓느라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소리를 쫓아 그 소리를 입과 귀에 가슴에 담기 시작하니 가슴에서 묘한 감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리도 아름다운 소리를 왜 이제야 알게 된걸까. 백지의 머리와 가슴으로 접한 경전은 내 가슴에 환희심을 심었다. 지금 봉은사 청년회의 첫 법회를 생각하면 그 때의 첫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한다.

나는 청년회 활동을 하며 봉사도 배웠다. 청년회 활동 중에 격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대부도에 있는 동지 청소년의 집에 갔던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부모와 헤어져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 그들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함께 청소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농구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바닷가에서 조개도 잡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많이 가까워졌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문득문득 떠올라 마음은 더욱 애뜻해졌다.

그렇게 만난지 오래된 사람처럼 가까워져서, 헤어질 땐 그곳에 남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올 때는 게임프로그램도 사가지고 오겠다고 정순칭이란 어린 법우(지금쯤 고등학교생이 되어 있을것이다)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린 것에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일어났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오.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대우적인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중구 동자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아에다 수뿔뿔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활짝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씩씩하게 살아납니다. 고갑난동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으며, 배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전신증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무서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라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기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정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간(肝) 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류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쁨: 다슬기 15kg을 황어물에 넣고 황어 9kg마리를 달인 뒤 황어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민 황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쁨을 만드는데 황어가 다 타들어 가까지 고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그동안 불행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기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협정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소연구원: 032)345-5411
휴대폰: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성도 힘량

픽미송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빠 뛰어도 만족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가	빙의 현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 자연)	무서워, 같았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검색창에 **애원사** 라고 검색

해원사 초하루, 18일 지정제일 신중합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없습니다.

스님? 세상에 세 제일 고생스럽고 풀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어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더 흔해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 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아가지고 뽕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것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만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취, 잇몸부림, 잇몸농종, 전염성파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02)2271-1441 농협: 360-12-046446 최능우